

紫巖 李民寔 詩에 나타난 현실인식의 한 단면*

박 상 영**

<차례>

- | | |
|-------------------------|--------------------------------|
| 1. 문제제기 | 3.2. 삼자 구조: 至道の 추구하고 愼獨의 美學 |
| 2. 시문학 창작의 배경과 세계관적 기반 | 4. 관료형 사림과 은구형 사림의 경계 -결론을 곁하여 |
| 3. 시적 구조에 함의된 현실 인식의 一面 | |
| 3.1. 이자 구조: 平淡과 閑寂의 美學 | |

1. 문제제기

紫巖 李民寔(1573~1649)은 政爭과 戰爭으로 점철된 조선 중기, 강호 자연과 정치 현실을 오가며 나름의 문학적 세계를 펼쳐 보인 문제적 작가이다. 특히 武才를 겸비한 유능한 문신으로서 明의 赴援軍으로 참전한 사실과 17개월간 冊中에서의 포로생활은 처절한 전쟁 기록과 함께 그의 현실 인식을 파악하는 단서로서 일찍이 주목받아 왔다. 여기에는 주로 「建奏聞見錄」·「冊中日錄」등 實記를 중심으로 당대 상황을 이해하고자 한 역사학계의 논의¹⁾가 대부분이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3S1A5A8021296).

**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교수

1) 특히, 그의 「建州聞見錄」과 「冊中日錄」은 ①조선 후기 역사 기록의 주요 사료로 종종 이용되기도 했으며(이익, 이궁익 등), ②최근 역사학계 및 문학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한명기, 고윤수, 우인수, 안세현 등) [①이익, 『성호사설』 2, 천지문, 西道關陘; 『성호사설』 4, 만물문, 人馬一心; 『성호사설』 10, 인사문, 閩家五梁; 이궁익, 『練藜室記述』 21, 폐주광해군고사본말, 深河之役; ②한명기(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고윤수(2004), 「광해군대 조선의 요동 정책과 조선군 포로」, 『동방학지』 12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41-97쪽; 고윤수(2006), 「이민환의 『紫巖集』과 17세기 조선의 요동문제」, 『동북아역사논총』 9, 동북아역사재단, 125-151쪽;

지만, 작가의 현실 인식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로서 生平과 저술에 대한 연구가 있기도 했고²⁾ 實記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그의 詩·賦문학을 대상으로 한 개별 작품론 논의³⁾가 의미 있게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詩·賦문학에 관한 논의는 다른 방면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시문학 관련 연구는 지금까지 이구의 교수에 의해 총체적인 경향성이 다루어진 1편밖에 없는 상황 이어서, 이 방면의 관심이 절실히 요청된다. 詩는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중심이 되는 갈래로서 實記나 書簡, 序跋類와는 또 다른 방향에서 당대 현실에 대한 작가적 고민, 내면의 토로가 정제되고 압축된 형식을 통해 제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시를 통해 한 작가의 현실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현실의 면면들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어떤 수사학적인 틀 속에서 구조적으로 짜여 있는가를 밝힘과 동시에 작가의 섬세한 감수성과 만나는 과정이어서 매우 의미가 있다. 특히 대상 작가에 대한 문학적 연구가 이제 막 시작단계에 접어들었고 남긴 시 편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연구사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민환 시에서 현실 인식의 단서를 찾아내기란 사실 쉽지 않다. 이는 그가 특별한 문학론을 전개한 것도 아닌데다가 남겨놓은 시가 불과 20여 수밖에 되지 않고 그 마저도 대부분이 輓詩 형태로 전하고 있다는 현실적 제약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생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면서 사상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그에게 큰 영향을 준 仲兄 敬亭 이민성의 시문학 연구가 나름 심도 있게 진척되는 동안에도 이민환의 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⁴⁾ 여기에는 물론 敬亭이 1200여 수의 시를 남긴 데다 시조로

우인수(2008), 「자암 이민환의 시대와 그의 현실대응」, 『동방한문학』 34집, 동방한문학회, 41-77쪽; 안세현(2008), 「자암 이민환의 「柵中日錄」과 「建州聞見錄」에 대하여」, 『동방한문학』 34집, 동방한문학회, 111-143쪽.

- 2) 장재호(2008), 「자암 이민환의 생애와 저술」, 『동방한문학』 32집, 동방한문학회, 7-40쪽.
- 3) 현재 자암의 개별 문학 작품론 연구는 이구의 교수의 연구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이구의(2008), 「紫巖 李民奩 「義牛塚」 賦 攷」, 『韓國思想과 文化』 41, 한국사상문화학회, 67-93쪽; 이구의(2007), 「紫巖 李民奩의 「獨樂園」 賦 攷」, 『상주문화연구』 17, 상주문화연구소; 이구의(2008), 「자암 이민환의 시문학 연구」, 『동방한문학』 34집, 동방한문학회, 77-110쪽.
- 4) 사실상 경정에 대한 연구도 편수는 많지 않지만 이민환에 비해서는 깊이 있게 이루어졌다. 관련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조해숙(1988), 「이민성의 시조한역의 성격과 의미」,

의 번역까지 시도한 바 있고 중요한 문학이론들을 제시하기도 해 문학사적으로 의미 있게 부각될 수 있었던 데 반해 이민환의 시는 표면상 눈길을 끌만한 요소가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몇 편 되지 않는 그의 시 문학에는 영남 남인 출신으로서, 또 포로생활이라는 특이한 경험을 한 인간으로서 나름의 작가적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마련이다. 편수가 적다는 이유로, 형경정에 비해 뚜렷한 문학적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그의 시가 묵과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지하듯이 그가 살다간 때는 독자적인 성리학적 이념 체제가 확고해짐과 동시에 점차 경화되어가는 데 대한 비판이 삼당파 시인들에 의해 제기되면서 새로운 문학 풍조가 나타났는가 하면, 당시풍의 출현, 천기론에 대한 모색 등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이 형성되던 시기였다. 동시에 16세기 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土禍와 전쟁으로 내우외환이 겹쳤던 그야말로 혼란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浮沈 속에서 대부분의 문인들은 강호자연과 정치현실이라는 두 세계를 오가며 나름의 현실 대응 방식을 보여주었는데, 이민환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그의 시에서 자주 발견되는 강호 한정(江湖 한정)의 즐거움과, 이와는 대척되는 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16~17세기 시가사에서 여전히 최대 난제 중 하나가 바로 문인들에게서 보이는 山水 인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임을 감안한다면, 이민환 시에 드러나는 자연과 이와 관련한 그의 현실 인식은 결코 가볍지 않은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가 지닌 현실 인식에 관한 한 면을 자연과 현실에 대한 인식주체의 태도에 주목하면서 작품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⁵⁾ 작가가 보여주는 의식세계는 하나의

『관악어문연구』 13,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209-234쪽; 문명순(2005), 「경정 이민성 문학의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218쪽; 박경은(2000), 「경정 이민성의 시문학」, 『한문교육연구』 15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99-225쪽; 최재남(2005), 「이민성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9집, 한국한시학회, 67-99쪽).

5) 자암이 남긴 만시도 상당 수 있고 이를 통해 그와 친분이 있던 인물이나 평소 흠모하던 인물과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생각은 볼 수 있지만, 만시 자체가 갖는 특수성 상 그의 현실 인식의 구체성을 살펴보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일단 본고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다만 만시 중에서도 죽은 인물에 대한 감정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일부

텍스트 구조로써 표출되기 마련이고, 그에 따른 미학적 함의는 18세기의 前史로서 여러 조짐들이 이 당시 어떻게 배태되고 있었던가 하는 물음에 하나의 단서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漢詩史에서는 현실 인식, 현실주의, 리얼리즘 등의 여타 용어를 쉽게 언급하면서 그 근거로 한결같이 애민, 우국충정의 틀 속에서 대상 작가의 현실 인식을 이해하고자 한 감이 크다. 그러나 한 시대를 살다간 문인의 시에서 발견되는 현실 인식은 단순히 텍스트 표면상 드러나는 현상 및 소재적인 차원에서 규정지을 수 있을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시의 현실 비판 기능을 계급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한 반성이 제기된 것⁶⁾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작가의 현실 인식의 단서를 애민, 우국충정이라는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틀을 벗어나 작품의 내적 구조 분석을 통해 한번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작가는 한 작가가 남긴 작품의 특징을 통해 그의 현실 인식의 일면을 밝히는 것에 한정되지만 크게는 영남 남인이 보여준 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을 살펴보는 토대 연구이자 숨어 있던 한 문인에 대한 문학적 가치를 발굴해 내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는 않을 것이다.

2. 시문학 창작의 배경과 세계관적 기반

한 작가의 문학 텍스트가 어떤 인식에 근간해 구조화되어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작품 창작의 토대가 되는 여러 가지 배경과 그 세계관적 기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민환이 평소 詩論에 관한 특별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紫巖集』에 실린 그의 연보 및 몇 편의 글을 통해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는 있다.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나 옛보이는 작품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한다.

6) 장유승(2008), 「박세채 한시를 통해 본 17세기 산림의 현실 인식」, 『한국한시작가연구』 12집, 한국한시학회, 156-157쪽 참조.

① 내 형(敬亭)과 함께 어린 시절 집안에서 공부하며 경사를 대강 안 후에 형은 杜詩를 얻어 밤낮으로 연구하여 거의 침식을 잊었고, 나는 雜書를 두루 보느라 겨를을 내지 못하였다. 이때부터 형은 문장이 날로 나아가 말하면 모두 사람을 놀라게 하여 한 때에 크게 알려졌으나, 나는 율타리를 넘보지 못하여 비로소 문장을 하는 자는 杜詩를 배워 차례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늙고 병들어 한가한 가운데 때때로 杜詩를 보면서 자못 재미를 알았으나, 기력이 미치지 못하여 알았다가 곧장 잊어버려 구멍 뚫린 잔에 물을 담는 것과 같음이 있어 매우 탄식하였다. 이에 祝和父의 『事文類聚』의 규례에 의하여 部門을 나누고 조리를 세워 詩句를 가려 종류별로 모았다.⁷⁾

② 내 일찍이 『논어』를 읽으니, 공자가 말하기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였다.....(중략).....무릇 道는 길을 말한 것이니, 천하 고금이 함께 말미암는 길이다.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어디를 가나 道가 아님이 없다는 것이다. 君臣에 이르러서는 군신의 엄한 바에 있고, 父子에 이르러서는 부자의 친한 바에 있으며, 喜怒哀樂의 발현됨과 死生夷險의 사이에 이르러서도 각각 마땅하게 행하는 道가 있으니, 잠시도 떠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하물며 큰 구덩이에 구급 되어 목을 늘이고 칼을 기다리는 날에는 더욱 마땅히 道로서 자신을 격려하여 仁을 이루고 義를 취한다는 가르침은 내 들은 지 오래되었다. 이 책의 제목을 朝聞이라 한 것은 다만 죽을 때가 가까웠기에 취했을 뿐이다.⁸⁾

①과 ②는 『紫巖集』 중 「杜句類抄序」와 「朝聞錄後序」라는 제목 하에 각각 실려 있는 글로 ①이 1640년 68세 되던 해에 「杜句類抄」를 편찬하고 그 서문을 쓴 것이라면 ②는 1620년 3월 冊中에 포로로 있을 48세 당시, 「朝聞錄」을 짓고 또 그 後序를 쓴 것이다.

7) 『紫巖集』 3(重刊本), 「杜句類抄序」, “余與仲氏俱在童丱學於家庭 粗通經史後 仲氏有 得於杜詩 日夜研究殆忘寢食 余則泛觀於雜書 有不暇焉 自是仲氏文章日進 語皆驚人 大鳴於一時 而余不窺闔藩籬 始知爲文章者 不可不學杜 爲之步驟也 及余衰病間寂中 時取杜詩而觀之 破知滋味 而精力不逮 隨得隨失 有同漏卮盛水 良可歎也 茲依祝和父事文類聚之規 分門立條 摘取杜句 各從其類 而萃集焉.”

8) 『紫巖集』 3, 「朝聞錄後序」, “余嘗讀魯論 子曰 朝聞道 夕死 可矣...(中略)...夫道之爲言路也 天下古今所共由之路也 是天地之間 無適而非道 卽君臣而君臣在所嚴 卽父子而父子在所親 以至乎喜怒哀樂之發 死生夷險之間 莫不各有當行之道 不可須臾離者 正謂此也 矧乎拘繫大窻 延頸待斃之日 尤當以道自勵 成仁取義之訓 余之聞之也夙矣 而是書之錄 目之以朝聞者 祇取乎死之時近耳.”

「杜句類抄」는 현재 重刊本에만 실려 전하는데⁹⁾ 이민환이 杜詩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던가를 알려주는 자료이며, 「朝聞錄」은 이민환이 冊中에 구류되어 있을 때 청군 통역인 大海가 性理群書를 비롯해, 二程全書, 名臣言行錄 등 30여권을 보내주었는데 모두 완질이 아닌 이들 책에서 격언과 지론을 뽑아 3권으로 만들어 즐겨 읽은 것이다.¹⁰⁾

먼저 ①의 기록은 두 가지를 말해 주는데, 하나는 이민환이 仲兄인 경정 이민성과 함께 학문적 기반을 닦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雜書를 보느라 시간을 내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는 겸양의 말로서 사실상 그의 시 정신이 杜詩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이민환과 이민성은 매우 각별했던 사이로 알려져 있다. 김성일의 문하에서 同學하면서 퇴계학맥의 기풍을 이어받았는가 하면(16세), 왜구가 해안을 타고 침입했을 당시 이민성과 함께 강릉부사였던 아버지를 도와 적을 격퇴시키기도 하고(20세), 영남 출신의 재경 선비들의 모임인 동도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활동하기도 했다.¹¹⁾ 뿐만 아니라 금강산 순행을 같이 하는가 하면(31세), 조정이 혼란해지자 관직을 버리고 형 경정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오기도 했으며(34세), 이민환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는 이민성이 ‘憶舍弟’¹²⁾

9) 현전 『자암집』은 모두 11종이며 8군데 도서관과 연구소 등에 소장되어 있다(고윤수(2006), 「이민환의 『자암집』과 17세기 조선의 요동문제」, 『동북아역사논총』 9, 동북아역사재단, 125-151쪽). 이중 현재 7권 2책의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규장각 소장본/초간본)과 목판본(중간본)이 주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중간본에는 초간본의 글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도 있으나(<越江後追錄>), 초간본에 없던 내용이 실려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시에서는 輓詩 5수가 더 실려 있다(<輓吳竹圃>, <輓金孝伯>, <輓孫季眞>, <輓金孝仲>, <呈朝天使鄭參議>). 본고에서는 輓詩가 직접적인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규장각본을 원본으로 하고 중간본을 참고하였다.

10) 『紫巖集』 7권, 「연보」, 선생 48세 (경신)조 참조.

11) 『漁適集』 3권, 「同道會題名錄」을 참조하면, 동도회에 참석한 인물로는 이민환과 이민성이 같이 이름에 올라와 있고, 『五峯先生集』 4권 <題嶺南同道會題名卷>에는, ‘영남의 선비로 조정에서 벼슬하는 자가 옛날과는 달리 지금 많지는 않으나 남아 있는 자가 서로 사랑한다면 모이고 흩어져도 쇠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록이 있다(“憶嶺之士仕于朝者, 舊不止此數 而名儒鉅卿茂才者居多 向雖存亡聚散之不常 其存者相愛之情亦不以聚散而替焉 斯可尚也已 仍係詩以美之.”).

12) 『敬亭先生集』 4권, <憶舍弟 集杜詩十絕>, “死去憑誰報三年望汝歸愁思胡笳夕東西消息稀/汝書猶在壁心死着寒灰浪嗔烏鵲喜天遣幾時迴/別離經死地握節漢臣回何時一樽酒辛苦賊中來/眼穿當落日 反畏消息來 生還今日事 淚落強徘徊/何當有翅翎 雁足繫難期側身千里道 深負鶴鴒詩/挺身艱難際 昔着從事衫 豈意賊難料 三年獨此心/胡行速如鬼 非汝能周防 骨肉恩豈斷 與君永相望/古人不可見 蘇武是吾師 皇天存老眼 見日敢辭遲/曉達兵家流

를 지어 강한 슬픔을 표출하기도 했다(48세). 이러한 정황을 보면 이 둘은 평범한 형제지간을 넘어서 서로의 정신적 지주였음이 틀림없다. 이는 곧 이민환이 알게 모르게 사상적으로나 문학적으로 형경정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부분이다.

특히 경정은 詩論에 관한 주목할 만한 글을 남기고 있는데 그 가운데 唐詩에 대해서 이백과 두보의 위치를 긍정하는 한편, 기고주의에 치우친 화려한 晚唐風의 시들을 평가절하하거나¹³⁾, 형식적인 의고주의를 경계하고 시 精神을 강조하는 天機의 중요성을 설파한 부분¹⁴⁾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정이 말하는 ‘天機’는 “인공보다는 자연을, 형식보다는 내용을, 외형보다는 시 精神을 중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자연’, ‘조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개념으로서¹⁵⁾ 이러한 면면들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민환의 詩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것이어서 경정의 시론이 이민환에게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杜詩가 지닌 현실주의적 시 정신 또한 이민환의 시 창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안록산의 난을 전후한 사회적 혼란이 두보를 자연스럽게 현실주의 시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란으로 인한 잔혹상의 경험과 이로 인해 발현된 휴머니즘은 두보 문학을 두루 관통하는 주제였다. 이러한 두보를 따르고자 하는 경향은 비단 이민환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두보의 여

主憂急良籌 未濟失利涉 龍吟回其頭/百年賦命定 成敗子何如 倘歸免相失 眷言終荷鋤.”

13) 『敬亭先生集』 1권, <贈送李立之赴長興>, “唐興李杜首一變黃鍾大鏞鳴時又秋霄沆瀣疎金莖玉露無聲浮沆瀣連峯斷嶺勢懸巨培螻不階瞻嵩岱...(중략)...晚唐湊砌格甚卑清濁短長無可愛黃陳竝肩蘇長公璀璨組璣盈幾斐.”

14) 『敬亭先生集』 12권, <四六精粹序>, “粵若玄黃剖開 清濁辨高下之位 人文宣朗 聖神闡造化之機 自犧繩始停 驪畫載顯 錯綜而陰陽立 對待而奇耦成 故七曜昭回 瓊璣繆輻於乾象 五色彰施 藻繪黼黻乎帝躬 八風節宣 調陰陽而順回序 六律和協 奏郊廟而衍百神 聲音由此而權輿 文章於是手賁飾 是以喜起之詠 始於典謨 風騷之興 繼於雅頌 漢魏以降 體裁多端 宮羽相宣 文質互勝 聲律之變則沈謝居前 駢駢之工則徐庾在後 琮璜錯落 纂組陸離 升降有時 雖謂之不古 風聲所習 蓋出於自然 遂使班朝會同 資文告於遠邇 楊王盧駱 擅傑筆於江河 掇瓊華於藍田 拔鯨牙於碧海 自是能言之士 接武以興 聯篇炳炳於詞垣 播芳郁郁於藝苑 咸由斯軌 用代如綸 建中敕書 悍將至於流涕 隆興頒詔 輿情感於聞風 我國家文運大亨 詞風丕振 宣上達下 非表箋何以通情 事大交隣 豈言語所能直指故曰辭之輯矣 民之莫矣...(下略)...”

15) 문명순, 앞의 논문 128쪽.

운을 얻어 울연하게 중엽의 정종이 되었다고 평가된 권필이나¹⁶⁾ 杜詩를 만 삼천 번 읽은 후에 시가 淸健하고 沈鬱해져서 마침내 두보의 법을 깊이 터득했다고 평가된 이안눌¹⁷⁾ 등 杜詩에 대한 관심은 詩勢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당대 文士들에게서 심심찮게 발견되는 하나의 문학적 풍조이기도 했다. 이러한 杜詩에 대한 관심과 이의 적극적인 문학적 수용은 곧 작가가 현실에 대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전쟁통에 포로 생활마저 경험해야만 했던 이민환으로서는 당시 현실 자각과 더불어 작가로서의 책무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과 사회를 정직한 눈으로 관찰하고 풀어내는 현실주의적 시 정신에 기반하고 있는 두보와 이민환의 삶과 문학적 지향성이 근거리에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②는 이민환의 시 중 <朝聞錄後序>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기도 한 데다 16세기 도학파의 인식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자료이다. 政爭과 전란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정신적 지주의 붕괴 등 이민환은 당시를 중심(道)이 무너진 위기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道로서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성리학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혼란한 시기일수록, 중심이 무너진 상황일수록 더욱 진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인식은 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서 修身을 강조하는 선비적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평생 그의 삶을 관통하는 화두이기도 했는데, 「博約集說」에서도 그 일단을 볼 수 있다.

③ 성인 문하에 六藝를 통한 자는 70여 제자인데 유독 顔子가 학문을 좋아하였다. 정이천이 말하기를 ‘배우는 자는 마땅히 안자를 배워야 성인에 들어가기 가까워져서 힘쓸 곳이 있다.’라 하였는데, 다만 불행하게도 명이 짧아 저서를 남기지 못했다. 은미한 말과 미묘한 뜻이 겨우 남아 있는 것은 한때 師友들이 말한 것과 훗날 鄒聖이 논한 것인데, 『논어』, 『맹자』, 『예기』, 『주역』 등의 책에 간략하게 실려 흩어져 나와 간혹 보이지만 자세히 알기는 쉽지 않다. 내 부족하면서 분수도 헤아리지 못하고 삼가

16) 『湛軒書』, 이종은·정민, 『歷代詩話類編』 (아세아문화사, 1988), 713-714쪽.

17) 『仁祖實錄』, 1년 3월 25일 기사.

모아 약간 章을 만들고 본서의 註疏도 함께 수록하였다. 또한 先儒의 說을 부록하고 합하여 ‘博約’이라 이름 하였는데, ‘학문으로 나의 지식을 넓혀 주고 예법으로써 나의 행동을 단속하게 해 주셨다.’라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중략)...사욕을 이기고 예를 회복하는 것을 으뜸으로 하고, 四代의 예악을 행하는 것을 가운데로 하고, 우입금과 稷이 도를 함께 한 것으로 끝을 삼은 것은 실로 이 책의 편집 차례이다. 혹시 훗날 배우는 자가 성인에 들어간다는 말에 얻은 것이 있고, 博約의 가르침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안자는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뜻을 세운다면 반드시 이에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¹⁸⁾

이 글은 1635년(63세)에 지은 것으로 ‘학문으로 나의 지식을 넓혀 주고 예법으로 나의 행동을 단속하게 해 주셨다’라는 구절을 따서 글 제목을 삼고 있는 것이나, ‘私慾을 이기고 禮를 회복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아 책을 편찬한 것으로 보아(밑줄), 이민환은 禮의 회복과 학문을 통한 자기 성찰을 시대의 최대 과제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즉 문제의 원인을 밖이 아닌 나 자신으로부터 찾아 부단히 수양하는 이러한 태도는, 무너져 가는 성리학적 질서의 수립이라는 당면 과제 앞에서 이를 정립해 가야 하는 관료 문인의 자기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그의 시 창작의 기반이 되어 경화되어 가던 도학적 시세계에 현실 인식의 과제를 부여하며 生氣를 불어 넣는 방향(당시풍과 杜詩의 적극적 수용,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 시 창작의 기반들이 작품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작가의 세계관적 기반과 구조화된 텍스트 간의 거리를 확인하는 것인 동시에 격동기를 살다간 한 文士의 작가적 고민을 추적해 가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18) 『紫巖集』 3, <博約集說序>, “聖門下通六藝者七十餘子 獨以顏子爲好學 既答君相之間至繫於易辭 嗚呼 其至矣乎 程伊川有言學者當學顏子入聖人爲近有用力處 但不幸短命 未及著書 微言妙旨僅有存者 一時師友所稱暨後來鄒聖所論 略載於語孟禮易等書 散出間見 未易融會 愚不敏 僭不自揆 謹以哀集 總若干章 本書註疏 亦並收錄 且附以先儒之說合而名之曰博約 取博我以文約我以禮之語也...(중략)...首之以克己復禮 中之以四代禮樂 終之以禹稷同道者實此書編集之序也. 倘後之學者有得於入聖之說 從事於博約之訓以顏何人予何人爲立志 則必將有感於斯云爾.”

3. 시적 구조에 함의된 현실 인식의 一面

輓詩를 제외한 初刊本과 重刊本에 공통적으로 실려 있는 자암 이민환의 시는 총 7제 10수인데¹⁹⁾ 이 중 <題朝聞錄後>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특정 장소가 부각되어 그 곳에서 일어난 일이나 느낀 감회를 읊은 경우가 많다(<氷溪酬唱>, <題揖僊亭>, <題方臺亭>, <方臺亭 次李蒼石韻>, <復用前韻 自敘>, <孤雲寺>).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氷溪, 揖僊亭, 方臺亭, 孤雲寺 등 이민환의 詩 대부분이 강호 자연을 주된 무대로 전개됨으로써 일견 정치 현실과는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도가적 초월 의지를 긍정하고 현실 참여에 대한 의지는 없었던 것일까? 관료형 문인으로서 그의 삶을 반추해 본다면, 그렇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 참여에 대한 그의 태도는 이러한 도가적 초월 의지와 더불어 어떻게 텍스트에 제시되고 있는 것일까?

본 장에서는 이를 위해서 因物起興과 관련 있는 사물인식관계의

- 19) 『紫巖集』(重刊本)에는 총 30여 수의 시가 실려 있는데 이 중 이민환의 시가 19제 22수로 7제 10수를 제외한 12제 12수가 만시이고 8수가 他人의 작품이다. 한편 初刊本(규장각본)에는 총 25수가 실려 있는데 이 중 이민환의 시는 14제 17수이고 7제 7수가 만시이며 8수가 他人의 작품이다. 重刊本에 나오는 시의 형태별 정리는 이구의 교수에 의해 정리된 바 있어, 여기서는 初刊本(규장각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No | 題目 | 형태 | 작자 | 비고 |
|----|------------|---|------------|-------------------|
| ① | 氷溪酬唱 | 1제10수(7언 절구) | 자암, 오봉, 경정 | 자암(4수), 오봉·경정(3수) |
| ② | 題朝聞錄後/題朝聞錄 | 2제2수(7언율시(1), 7언절구(1)) | 자암, 경정 | 題朝聞錄(절구, 경정작) |
| ③ | 題揖僊亭 | 1제 1수(7언 절구) | 자암 | |
| ④ | 輓金柏巖 | 1제 1수(7언 율시, 만시) | 자암 | |
| ⑤ | 輓申修撰 | 1제 1수(5언 율시, 만시) | 자암 | |
| ⑥ | 輓申梧峯 | 1제 1수(5언 고시, 만시) | 자암 | |
| ⑦ | 輓權花山 | 1제 1수(5언 율시, 만시) | 자암 | |
| ⑧ | 題方臺亭 | 1제 1수(7언 배율) | 자암 | |
| ⑨ | 方臺亭 次李蒼石韻 | 1제 2수(7언 율시) | 자암 | 창석 시(1수) 수록 |
| ⑩ | 復用前韻 自敘 | 1제 1수(7언 율시) | 자암 | |
| ⑪ | 輓金經歷 | 1제 1수(5언 배율, 만시) | 자암 | |
| ⑫ | 輓金徵士 | 1제 1수(7언 율시, 만시) | 자암 | |
| ⑬ | 輓文兵使 | 1제 1수(5언 배율, 만시) | 자암 | |
| ⑭ | 孤雲寺 | 1제 1수(7언 절구) | 자암 | |
| 합계 | | 紫巖集 수록 詩 총15제 25수(자암작: 14제 17수, 타인작: 3제 8수) | | |

특이성에 주목해 텍스트의 구조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²⁰⁾ 사물인식관계는 조선조 유학자의 觀物的 태도와 일정한 함수 관계를 가지는데²¹⁾ 구체적으로는 ‘주체-객체-개념’의 관계를 통해 인식 주체의 현실 인식의 특성을 뚜렷이 드러낸다.²²⁾ 여기서 ‘주체’는 텍스트 내에서 담론적 상황을 이끌어가는 핵심적 인물(인식주체)이고, ‘객체’는 ‘주체’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주체로 하여금 起興하게 하는 ‘사물’이며, ‘개념’은 ‘주체’와 ‘객체’가 만드는 역학적 구도의 중심에 있는 하나의 ‘기표’, 곧 인식의 내용물이다. 이 세 가지 중 개념의 텍스트 내 존재여부에 따라 이민환 시에는 ①주체-객체(이자구조)인 경우와 ②주체-객체-개념(삼자구조)인 경우의 두 가지가 보이는데 그에 따른 현실인식 또한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3.1. 이자 구조: 平淡과 閑寂의 美學

이민환의 시에서 우선 주체-객체의 이자 구조가 나타나는 작품으로는 <水溪酬唱>, <題揖僊亭>, <方臺亭 次李蒼石韻>, <復用前韻自敘>, <孤雲寺>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강호 자연과 정치 현실간의 선명한 대립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인식주체가 처해

20) 사물인식관계란 인식주체가 사물을 접해 어떤 인식을 드러내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因物起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因物이 시적 대상인 사물이라면, 起興은 작가의 감정인 정서를 말하는 것으로 곧 因物起興은 작가가 시적 대상으로부터 어떤 감정을 느꼈으며, 또한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시적 대상을 시문학에서 예술의 형식을 통해 어떻게 형상화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기도 하고, 독자가 시가에술을 이해하는 감상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손오규(2000), 「산수문학에서의 인물기흥」, 『반교어문학』 11집, 반교어문학회, 89쪽).

21) 유학자들의 사물인식은 대체로 ①即物的, ②理念的, ③歷史的 認識으로 나타나는데, ①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포착한다면 ②는 사물을 이치가 드러나 유행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체화하여 인식한 것을 말하며, ③은 사물과 자아 사이에 탄력이 부여됨으로써 사물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주체적으로 재해석해 내는 것을 말한다(정우락(2002), 「南冥의 事物認識方法과 詩精神의 行方」, 『南冥學研究論叢』 11집, 남명학연구원, 196쪽).

22) 필자는 이미 이전 논의에서 ‘주체-객체-대상(개념)’의 분석틀을 통해 사물인식관계와의 상관성 및 그에 따른 작가의 현실 인식의 단초를 밝힌 바 있다. 문인 유형에 따라 이들의 탄력적 관계 및 미학적 의미망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16~17세기 많은 문인들을 대상으로 검증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체-객체-대상(개념)의 분석틀은 이전 논의와 동일선상에 있음을 밝혀둔다(줄고(2008), 「정훈 시조의 구조적 특질과 그 미학적 의미」, 『시조학논총』 28집, 한국시조학회, 29-61쪽; 줄고(2007), 「신흙 시조의 이중 구조와 그 의미지향」, 『한국시가연구』 22집, 한국시가학회, 101-137쪽).

있거나 지향하는 공간은 ‘자연’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시선을 보여주는 반면, 정치 현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는 공통점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 | |
|------------------------|---------|
| 자욱한 구름 지루한 비 갑자기 개는데 | 屯雲宿雨忽晴開 |
| 값지고 귀중한 제호주를 멀리서 보내왔네. | 珍重提壺遠送來 |
| 장차 기로에 다다라 五馬를 재촉 말게 | 且莫臨岐催五馬 |
| 종일 깊은 술잔 기울여도 해될 것 없으니 | 不妨終日倒深杯 |

| | |
|--------------------------|---------|
| 주렴 드리우고 방에 누워 문을 연 적 없는데 | 簾垂臥閣不曾開 |
| 새로운 命이 임금님으로부터 내려왔네. | 新命應從天上來 |
| 분주하게 조정에서 흙먼지 날릴 적에 | 奔走東華塵土日 |
| 이곳에서 함께 술 마신 일 잊지 않으리. | 無忘此地共含杯 |

| | |
|-------------------------|---------|
| 오늘 이별하는 심정 누구에게 토로할까. | 離懷今日向誰開 |
| 홀로 지팡이 짚고 발길 닿는 대로 왔다네. | 獨自扶藜信步來 |
| 봄 다하자 꽃은 지고 산은 적막한데 | 春盡花飛山寂寂 |
| 시냇가서 갓끈 씻고 억지로 술을 채우네. | 濯纓溪畔強斟杯 |

| | |
|----------------------|---------|
| 자암에 단풍들면 비단 병풍 펼쳐지리니 | 紫巖楓葉錦屏開 |
| 묻노니, 가을바람에 올는지 안 올는지 | 爲問秋風來不來 |
| 시냇가서 여럿이 농어회 쳐서 먹으니 | 溪頭共斫鱸魚鱠 |
| 그대에게 태백의 잔 띄우고 싶어지네. | 便欲浮君太白杯 |

②

| | |
|-------------------------|---------|
| 揖僊亭은 구강 어귀에 있는데 | 揖僊亭在九江頭 |
| 바람 달 황량하게 몇 백 년이나 지났다. | 風月荒涼幾百秋 |
| 오늘 서로 만난 것은 연분이 있는 줄 알아 | 今日相逢知有分 |
| 경치 좋은 곳에서 손잡고 함께 놀리라. | 綠雲携手好同遊 |

①은 <冰溪酬唱>으로 『梧峯先生文集』 4권에는 「檜山雜詠下」의 題名 하에 전하고 있다. 『紫巖集』 (重刊本)과 『梧峯先生文集』에는 “冰山洞口 臨溪酌酒 同寬甫而壯(李公民賓號紫巖)及諸生呼韻(時自檜山來會)”²³⁾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를 통해 寬甫(李民成의 字)와

23) 『梧峯先生文集』4, <檜山雜詠下>.

而壯(李民奐의 字), 그리고 檜山에서 빙계로 온 梧峯이 술자리를 함께 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檜山은 昌原의 옛 지명인데 『梧峯先生文集』 해제를 참고하면, 申之悌가 광해군 5년(1613, 52세) 가을에 창원 부사가 되고, 광해군 10년(1618, 57세) 7월에 체직되어 龜尾村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어, 이 시는 먼저 1613년에서 1618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시기 중에서도 1613년은 이민환이 忠原(지금의 충주)현감으로 부임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인과의 알력으로 파직되었던 해로, 이민환의 시 4수에 이어 실려 있는 신지제와 이민성의 시 3수의 내용을 참고하면(惆悵離程相送後 南征無復故人杯/君今此去幾時來)²⁴⁾ 이 시는 아마 이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친한 벗과 한 몸 같은 형제를 떠나야 하는 인식 주체는 객체(술)를 통해 상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담담한 어조로 표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직설적으로 토로하기보다는 그 슬픔이 터질 듯 안 터질 듯 긴장감 속에서 平淡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식 주체가 술(잔)을 보면서 어떤 새로운 개념이나 인식을 떠올리고 있지는 않다. 즉 주체-객체의 이자 구조 속에서 이별에 대한 주체의 정서가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또 이 작품에는 자연과 현실의 대립 상도 보인다. ‘자연(빙계)’이 복잡한 정치 현실을 떠나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웃고 떠들며 즐길 수 있는 긍정적인 공간이라면, 텍스트 상 부재하는 현실은 인식주체의 어조를 통해 다소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함께 술 마시며 즐거워야 할 공간(자연)에서의 만남이 그리 유쾌하거나 즐겁지만은 않은 것은 이별을 강요하는 현실 때문이고, 그 현실은 주렴을 드리우고 방에 누워 문을 열고 싶지 않을 만큼 외면하고픈 곳(簾垂臥閣不曾開), 기쁜 마음으로 빨리 달려 나가 참여할 만큼 유가적 道가 실현

24) 이들 시는 다음과 같다[신지제:①野臺蕭灑石崖開/山翠紛紛映水來/惆悵離程相送後/南征無復故人杯 ②窶閨新釀綠萍開/問柳尋花谷口來/珍重故人無限意/不堪相送更斟杯 ③離筵草草水邊開/勝友東南不約來/萬事如今堪一笑/玉山頽臥更呼杯; 이민성:①春去餘花次第開/春愁猶自絆人來/一年好景君須惜/莫向離筵苦拒杯 ②多少離懷撥不開/君今此去幾時來/驛亭春盡花如雪/何處臨流獨舉杯③兩屋相對石門開/一道飛泉隱復來/溪上黑雲催雨色/臨分更進馬前杯].

되고 있는 곳이 아닌, 五馬를 재촉 말고 종일 술잔 기울이면서 한없이 늑장을 부릴 만큼 주저되는 곳(且莫臨岐催五馬 不妨終日倒深杯), 갓끈 씻고 억지로 술을 채워 마시면서 잊고 싶은 곳이다(濯纓溪畔強斟杯). 그러나 인식 주체의 이러한 태도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退處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이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지로 나타난다(奔走東華塵土日).

현실 참여에 대한 이러한 양가적 감정 혹은 부정 의식은 ②에서는 더욱 강하게 표출된다. <題揖僊亭夢遇梅福於此亭上 作詩以贈之>라는 제목의 이 시는 이민환이 46세~48세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²⁵⁾ 여기서도 인식 주체는 객체(梅福)를 만나 그 즐거운 감흥을 자설적인 어조로 담담하게 토로하고 있을 뿐 어떤 특정한 개념이나 인식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게다가 ‘자연’은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 반해 텍스트 상 부재하는 ‘현실’은 비판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텍스트 상 起興하게 하는 객체이자 인식주체가 동경하는 인물인 ‘매복’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매복’은 역사적으로 梅生 혹은 梅仙 등으로 불렸는데, 왕망이 정사를 전횡하자 처자를 버리고 떠나 九江으로 가 신선이 되었다고도 하고 吳市의 門卒이 되었다고도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비록 미관말직의 관리로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여러 차례 조정에 상소도 올릴 만큼 현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그로 인해 그의 이름이 여러 번 사서에 올랐으며 자치통감에는 그의 상소문이 실려 전해지기도 하는 등 현실에 부단한 관심을 보여준 인물이다. 그러나 문학에서는 주로 隱吏로 표현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불합리한 현실을 떠나 강호자연에 묻혀 산 隱逸之士로 상징된다.²⁶⁾

25) 『紫巖集』(重刊本)에는 <題揖僊亭夢遇梅福於此亭上 作詩以贈之>다음에 <輓金栢巖>, <輓吳竹牖>, <輓權花山>, <題朝聞錄後>가 순서대로 실려 있는데, 김륵(1540~1616), 오운(1540~1617), 권응수(1546~1608)의 삶과 <題朝聞錄後>이 지어진 1620년경을 토대로 추정해 보면, 이 시는 1618~1620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 이민환의 나이는 46~48세였다.

26) 매복을 은일지사의 상징으로 본 경우로는 다음의 시를 들 수 있다(최립, 『簡易文集』 7권, 「麻浦錄」, <酬梧相寄章次韻>, “非關末路難投迹 自信天工賦與公 軒冕無心眞隱吏 江山有句假漁翁 寓居猶占半簷月 歸計且留一席風 忽得台章驚甚寵 也知詩妙未須窮 放翁嘲漁翁 江山如此一句無 今反使其語云.”; 장유, 『谿谷集』 25, <感興十四首 和崎庵子>, “愚者昧視聽 喆人識幾微 伊川見被髮 百年爲戎夷 海禽知天風 遠身來郊圻 所以梅子眞 一

이러한 인물을 꿈속에서 만나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기뻐하는 주체의 태도는 표면상 단순히 平淡하고 閑寂한 삶을 지향하는 정도로 읽히지만 그 이면에는 또렷한 출처의식을 통해 현실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즉 이민환은 자신의 시대를 不時宜한 것으로 보아 현실에 대해 도가적 초월을 표방하며 處士의 태도를 견지한 ‘매복’을 곧 이상적인 인물로 생각한 것이다. 혼탁한 세상에서 한결음 물러나고픈 욕망이 자연에의 경도와 현실 참여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진정한 仕의식이 무엇인가를 ‘매복’이라는 인물 지향을 통해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주체-객체의 구조 속 자연에의 긍정과 텍스트 상 부재하는 현실에의 비판은 <方臺亭 次李蒼石韻>, <復用前韻 自敘>, <孤雲寺> 등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③

| | |
|------------------------|---------|
| 방대정에 오르니 가을바람 불어오는데 | 登臨臺上正秋風 |
| 울긋불긋 나뭇잎은 골짜기에 비치네. | 丹葉黃花映峽中 |
| 꺾아지른 듯한 골짜기 깊숙한 곳에 | 絕壑更幽迷洞府 |
| 꺾은 듯한 층층 벼랑, 조물주가 만들었네 | 層崖如削倩神工 |
| 은죽이 뿔뿔한 산에 온통 찬비 내려 | 千山白雨森銀竹 |
| 한 줄기 맑은 시내 옥색 무지개 감싸네. | 一派清川遶玉虹 |
| 진중일 마음 맑게 조용히 관람할 곳 | 終日澄心靜觀處 |
| 주인 늙은일랑 자주 부르지 마시구려. | 不須頻喚主人翁 |

④

| | |
|---------------------------|---------|
| 회오리바람 타고 구만리 날아오를 생각 접었으니 | 意絕扶搖九萬風 |
| 마음 비운 사람에게 성쇠를 묻지 말게나. | 休將衰旺問虛中 |
| 坐忘하여 스스로 채심법을 얻었으나 | 坐忘自得齋心法 |
| 짜이 죽어 신묘한 숨씨를 내기 어렵다네. | 質死難逢斲鼻工 |
| 거울 보니 머리에 백발이 성성하고 | 看鏡剩饒頭上雪 |
| 시 쓰는데 붓 끝에 무지개 뜨지 않네. | 題詩殊乏筆端虹 |
| 오랜 인연이 方壺의 약속 저버리지 않아 | 宿緣未負方壺約 |
| 종일토록 즐겁게 橘翁과 마주하였네. | 盡日怡然對橘翁 |

去不復歸.” 두보의 시에도 “隱吏인 매복을 만나 보면서, 산을 유람했던 謝靈運을 추억 하리.[隱吏逢梅福 遊山憶謝公]”라는 구절이 있다(『杜少陵詩集』3권, <送裴二虯尉永嘉>).

⑤

| | |
|-----------------------|---------|
| 고운은 이미 흰 구름 타고 떠났는데 | 孤雲已乘白雲去 |
| 이곳에는 부질없이 절 이름만 남아있네. | 此地空留古寺名 |
| 천 년 전 모습을 어느 곳에서 보리오 | 千載風神何所見 |
| 온 산의 소나무 달빛 분명 고운일레라. | 滿山松月十分明 |

여기서 ③은 조선 중기의 문신인 李垸(1560~1635)의 시²⁷⁾에 次韻한 것이고(<方臺亭 次李蒼石韻>) ④는 ③의 시에 再韻한 것이며(<復用前韻 自敘>), ⑤는 고운사를 방문한 뒤 느낀 감회를 읊은 시이다(<孤雲寺>). 모두 인식 주체가 어떤 대상에 임해 스스로의 감흥을 즉흥적으로 읊고 있는 卽物的인 인식만 드러날 뿐 어떤 특별한 개념이나 인식을 떠올리는 과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인식 주체가 ‘자연’에 대해 긍정적인 한편, ‘현실’이 텍스트에 부재하거나(③⑤) 존재하거나(④) 간에 모두 비판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앞서의 시들과 동일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작품들 간에도 미세한 차이가 있다. 먼저 ③과 ④는 제시된 텍스트적 상황이 다소 다르다. ③이 인식 주체가 方臺亭(객체)를 접해 흥을 일으키고 그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과 그 속에서의 즐거움을 평담한 어조로 읊고 있다면, ④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보다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意絕扶搖九萬風 休將衰旺問虛中). ‘宿緣未負方壺約 盡日怡然對橘翁’²⁸⁾라는 구절로 보아 인식 주체가 처한 공간은 현실과 유리된 자연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인식 주체의 興을 불러일으키는 객체는 <復用前韻 自敘>라는 제목에서도 보듯 주체의 현 감정 상태 혹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물론 인식 주체가 체감하고 있는

27) 창석의 원시는 다음과 같다(“曾從天柱御冷風 道骨眞宜著此中 一片靈源天祕勝 半空飛閣鬼輸工 窓前列岫翔金鳳 階下寒流逸玉虹 欲續舊遊吾老矣 謾將詩句謝僊翁.”).

28) 이는 인식주체가 橘翁과 더불어 세상일을 잊고 신선처럼 살자고 했던 이전의 약속을 지칭하는 것으로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볼 수 있다. 橘翁의 정체는 분명치 않은데 아마 작자와 친분 있는 무명의 處士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敬亭先生集』에는 <憶張橘翁>라는 시가 전하는데(獨坐千峯雨 相思隔翠微 遙知張處士 寂寞掩柴扉) 그 내용을 보면 橘翁은 자암 및 경정과도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인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현실일 것이다. 즉 한때 어지러운 현실 속 참여 의지를 강하게 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이에 미련을 갖지 않고 강호 자연에 은거하면서 마음의 안식을 찾고자 하는 바람이 표출되어 있는 것이다. 자연에의 긍정과 현실 참여에의 부정이 대립되어 있는 이 두 시에서 인식 주체의 자연 완상 태도는 고요하면서도 정갈한 느낌마저 자아낸다. 아울러 쉬운 일상어로 平淡하고도 閑寂한 느낌을 주는 이들 시는 당시풍의 묘미를 한껏 느끼게 한다. 이는 한적한 공간에서 조용히 스스로를 수양하는 태도[‘終日澄心靜觀處 不須頻喚主人翁’(③), ‘坐忘自得齋心法’(④)]와 더불어 더욱 자아 성찰의 한 면모를 뚜렷이 보여준다.

⑤는 주체-객체(고운사)의 이차 구조 속에서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보듯 平淡한 느낌을 자아낸다. 여기서 孤雲은 없지만 없는 것이 아닌, 즉 ‘은 산의 소나무 달빛’(자연)과 동일시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통합되는 화합의 세계, 物我一體되는 극적 순간의 감흥을 담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형적인 당시풍의 색채를 띠는 이 시에서,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대상인 孤雲은 ‘부재(起·承·轉句/無)’에서 갑자기 ‘현존(結句/有)’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바뀌는 인식 주체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제시되고 있다. 孤雲은 실제로 뛰어난 유학자였지만 전설상 종종 도가적 초월에 경도된 인물의 상징으로 제시되는데, 한 인물이 지닌 이러한 이중성은 이민환 시에서는 후자의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다(起句). 현실에 대한 비판이 직접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인식하는 통합적 시각을 통해 그 이면에 현실 부정과 자연 긍정이 공존하고 있음을 간취해 낼 수 있다.

3.2. 삼자 구조: 至道の 추구하고 慎獨의 美學

한편, 이민환 시에는 앞서의 시들과는 달리 ‘주체-객체-대상(개념)’의 삼자 구조를 보이는 일련의 작품이 있다(<題方臺亭>, <題朝聞錄後>). 새로운 구조적 특징은 자연과 현실에 대한 인식 주체의 태도에 있어서 또 다른 미적 특색을 드러내기 마련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⑥

아름답구나, 방대 대 꼭대기의 정자여
 냇물은 띠가 되고 산은 병풍이 되었네.
 나는 가을바람 물고 와 운경을 두드리며
 대에 올라 쉬지도 않고 두리번거리네.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선 북두성도 따
 여기서 옥황상제 조정에 이를 수 있네.

.....(중략).....

한 평생 고인들 깨어있는 것 안타까워라
 책 가득히 토해낸 말 모두 다 경전일세.
 내가 화답하려하나 그 형식 갖추기 어려워
 갑자기 布鼓가 우레 소리처럼 들려
 큰 태양 아래 썩은 반딧불을 천거하여서
 짧은 대 작대기로 大呂를 연주하네.
 주인의 올바른 뜻에 法度 있나니
 좋은 가르침 따르기를 螟蛉처럼 하네.
 평생토록 매인 신세 감옥 속에 갇힌 듯
 세상살이 기구하여 새 날개 꺾인 듯
 요새 황금빛이 조정에 뜨나니
 다행히도 오늘 아침엔 눈 갑자기 맑아져
 어정거리다 뜰 앞 명엽 바뀔 줄도 모르고
 머리 굽적이며 눈발 흩날릴 때 이별하려네.
 돌아오는 길에 멍하니 외로움 한탄하니
 그대와 나 사이 물 가득 실개천이 막았네.
 그대에게 바라노니 언제나 행동 조심하시어
 저 바람 향해 길이 평안하시기를 비나이다.

美哉方臺臺上亭
 水以爲帶山爲屏
 我御秋風叩雲扃
 登陟周覽不暫停
 上上峯頭摘辰星
 自此可以達帝庭

.....(中略).....

一生長恨古人醒
 滿卷吐辭儘爲經
 我欲和之難爲形
 却將布鼓爭雷霆
 大陽之下舉腐螢
 大呂肯許撞寸筵
 主人雅義有典刑
 式穀之似追螟蛉
 平生局束如在囹
 世路崎嶇困摧翎
 邇來黃色浮天庭
 何幸今朝眼忽青
 淹留不覺換階蓂
 欲別搔頭雪飄零
 回路惘然歎伶仃
 兩地盈盈隔一滄
 願君起居慎晝冥
 向風長祝胡耆寧

⑦

하늘가 아득한 곳 뜬구름 같은 이내 삶
 지극한 도 듣기 어려움이 근심이라네.
 夫子의 한 말씀 참으로 쾌활하니
 영천 태수의 뜻이 또한 서리었구나.
 먼지 낀 책을 때로 열어 살펴보니
 마음에서 靜處를 구하는 것이 좋다네.
 아침저녁으로 이해해 나가야 하니
 그대 마음대로 모두 세상 밖으로 유유히.

眇然天地此生浮
 至道難聞是可憂
 夫子一言誠快活
 穎川斯意亦綢繆
 須從塵卷開時繹
 好向靈臺靜處求
 蚤夜祇應融會去
 任教身外儘悠悠

⑥은 <題方臺亭>으로 <方臺亭 次李蒼石韻>, <復用前韻 自敘> 앞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과 비슷한 시기이거나 조금 앞서 지어진 것으로 보이며(1618~1620년) ⑦은 <題朝聞錄後>로 이민환이 冊中에 拘留되어 있을 때 지은 것이다(1620년).

먼저 ⑥을 보면, 제목이 말해주듯 이 시는 ‘方臺亭(객체)’에 올라 그 감흥을 읊은 것으로, 앞서 방대정 次韻詩나 再韻詩와는 달리, 인식 주체의 감정이 直敘的이지 않고 새로운 개념들이 떠오르는 주체-객체-개념의 삼자 구조 속에서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22句까지가 방대정 주변의 아름다움을 읊는 즉물적 인식을 보여 준다면 23句 이하는 경전의 중요성, 자신의 현재 처지, 현실 속 머물러 있는 그대, 조정의 현실 등이 여러 고사와 더불어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은구 공간인 방대정은 淡淡하고 아름답게 묘사하는 데 반해 현실은 부조리하고 모순된 것으로 읊고 있어(31~40句) 이러한 상반된 태도가 시적 긴장감을 더해 준다. 그러나 인식 주체는 이러한 현실을 회피하는 대신 오히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준다. 현실을 비판하고 도가적 초월 의지를 긍정했다면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외롭거나 밟걸음이 무겁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回路惘然歎伶仃”).

현실에 대한 주체의 부단한 관심은 또한 비록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비록 ‘그’와 ‘나’ 사이의 단절이 있지만 현실 공간에 처해 있는 그에 대한 긍정, 염려, 당부의 언사 등을 통해 또렷이 드러난다. 여기서 유독 ‘愼’자가 눈에 띄는 것은 ‘바람’으로 비유된 부조리한 현실, 험난한 정치 여정 속에서 선비로서의 행동거지 및 마음가짐에 대한 그의 신념(愼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仕의식의 정립²⁹⁾과 愼獨의 자세를

29) <읍선정>, <고운사>에서도 과거 인물을 떠올리면서 화자의 지향의식을 보여주지만 <방대정>, <조문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전자는 시간적 거리를 뛰어 넘어 역사 속 인물을 현재의 공간에 끌어와 인식주체의 감정, 정서, 의지 등을 표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조문록>에서는 이러한 시간적 거리를 건너 뛴 ‘과거 고사 속 인물’이 하나의 ‘개념’으로서 드러나고, <방대정>에서는 자연 속 시간의 흐름을 제시하면서 현재 인물(그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읍선정>, <고운사> 등이 모두 주체-객체의 이자 구조 속, ‘현실참여 부정, 자연 긍정’의 모습을, <조문록>, <방대정>은 ‘현실 참여 긍정, 자연 긍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통해 드러내는 인식 주체의 현실 인식은 단순히 사물(방대정)을 접해 포착되는 감흥을 즉물적으로 읊은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이념적 인식과 역사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현실 인식은 ‘方臺亭’을 주제로 한 여타 문인들이 단순히 즉물적 인식에 머물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어서³⁰⁾ 더욱 주목된다.

한편 ⑦은 현실 참여에 대한 긍정 의식이 ⑥과는 또 다른 방향에서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는 인식 주체가 불합리한 현실(객체)을 마주해 ‘至道’, ‘融會’ 등을 떠올리고 있어 주체-객체-대상(개념)의 삼자 구도를 볼 수 있다. 首聯에서는 현실과 적응하지 못한 채 浮遊하는 인식 주체의 처지 및 유랑의식이 엿보이지만, 이러한 현실을 접해 자연에 은거하는 대신, 오히려 이를 타계할 방안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현실 참여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곧 텍스트상 자연은 부재하지만, 그의 시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이에 대한 부정 의식은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연과 현실 양쪽 모두를 긍정하는 작가적 인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주목할 것은 현실 참여에 대한 뚜렷한 인식, 강한 실천 의지는 급진적이고 과격할 방향으로서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至道를 추구하여 자연스레 밖으로 퍼져나가는 방향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修身과 학문을 통해 어려운 때일수록 스스로를 삼가는 慎獨의 자세를 철저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체-객체-개념의 삼자 구조를 보여주는 그의 시들은 대상에 대한 단순한 감흥을 읊는 것을 넘어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 곧 사림과 문인의 성리학적 인식(이념적 인식)의 한 면을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그의 이 시를 두고 宋詩風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30) ①金誠一(1538~1593) ②金涌(1557~1620) ③申之梯(1562~1624) 등도 ‘방대정’과 관련해 서 각각 1수씩 지었는데, 모두 이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과 감흥을 즉물적으로 읊었다[① 玉峽應千疊 寒溪幾曲流 孤村當谷口 危榭倚巖頭 籬吠雲中犬 沙眠海上鷗 客來仍坐久 春日下汀洲(『鶴峯集』1권, <題方臺亭>); ② 聽說方壺勝 眞宜隱靜流 雲閒明鏡面 松老翠屏頭 深樹鳴幽鳥 晴沙立炯鷗 若能謀數頃 萬事付滄洲 右方臺亭.(『雲川集』2권, <遊周王山 敬次鶴峯先生韻 二十一首>; ③ 曾御纒輪園苑風 昔年遊賞夢魂中 幸存棟宇裝成好 苦欠詩章粉飾工 簷聳石厓陰上鶴 樑浮霄漢影分虹 樓居羽客邀相過 應賦歸來喚此翁(『梧峯集』5권, <方臺亭 次李叔平韻>).

고 본 논의³¹⁾는 그런 점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생각된다. 당시풍과 송시풍의 양면성을 함께 보여주는 이러한 시적 경향성은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 깊이 고구해 봐야겠지만, 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본다면 남명학과 퇴계학을 아우르는 강안학풍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곧 그가 태어난 의성은 낙동강 연안 지역을 의미하는 강안지역의 하나로, 유학 사상사적 측면에서 볼 때 강우의 남명학과 강좌의 퇴계학을 통섭한 측면과 함께 현실대응에 민감하면서도 성리학적 사유를 탄력적으로 추구하는 특징적 국면을 지닌다. 이는 吉再 이하 김종직의 도통을 이어받은 영남사람의 정신을 성실히 계승하면서도 강좌의 이황과 강우의 조식을 함께 스승으로 모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³²⁾ 이민환의 학문적 배경이나 교유 관계를 통해서도 현재 남명학과와의 관련성을 찾기가 다소 힘들지만, 그의 문학적 경향만을 두고 본다면 분명 현실대응에 민감하면서도 성리학적 사유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 남명학과와 비교 고찰해 볼 여지를 남기고 있다. 어쨌든 그의 이 같은 이념적 인식, 사변적인 세계관, 현실 참여에 대한 적극적 의지 등이 삼자 구조 속에서 발견되고 있음은 특히 같은 주제로 <題朝聞錄>을 읊고 있는 경정의 시와 비교할 때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⑧

| | |
|-------------------------------|---------|
| 정자와 주자의 지론은 늘 외위야 하거늘 | 程朱至論宜常誦 |
| 하물며 이처럼 수명이 위태로울 때에야! | 況此臨危授命秋 |
| 애오라지 마음 속 ‘가(可)’자 한 글자 얻어 | 了得胸中一可字 |
| 아침에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으니 다시 무엇 구하리 | 朝聞夕死更何求 |

激浪의 시대를 맞아 선비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자세가 ‘至道の 추구’에 있음은 형과 아우의 생각이 동일하다. 그러나 형 경정이 『論語』 <里仁篇>에 있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朝聞道夕死可矣]”는 한 구절을 詩化하는 데만 그치고 있다면,

31) 이구의(2008), 「자암 이민환의 시문학 연구」, 『동방한문학』 34집, 동방한문학회, 77-110쪽.

32) 정우락(2006), 「西溪 金甌壽의 戰爭體驗과 그 文學的 對應」, 『영남학』 10, 경북대영남문화연구원, 378-379쪽.

이민환은 寇恂의 고사³³⁾를 인용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性理書 탐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론마저 제시하면서 현실 참여에의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4. 관료형 사림과 은구형 사림의 경계-결론을 곁하여

지금까지 사물인식 관계에 따른 시적 구조를 통해 이민환의 현실 인식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의 시에는 도가적 초월 의지를 긍정하는 가운데 유가적 현실참여를 부정하기도 하고, 반대로 적극적인 현실 참여 의지를 보여주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하나의 현실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인식 주체가 처한 현실적 위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그의 생애 속에서 뚜렷이 드러나는데, 1573년(선조6년) 의성현 蘇侍郎里에서 李光俊과 平山 申氏 사이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김성일, 유성룡, 장현광 등에게서 학문을 배우며 퇴계학맥을 잇는 학문적·사상적 기반을 닦았으며 16세에 別試初試에 합격한 이후, 임란 시 강릉부사였던 부친을 도와 왜구를 격퇴하기도 하고, 예문관검열관, 춘수관기사관, 통훈대부, 정언, 병조좌랑, 호조 참의, 형조 참관 등을 두루 역임하기도 한 당대 관료형 문인이었다. 그런데 그가 예문관 검열로서 관직에 처음 진출할 당시(선조33년, 28세) 조선의 정치 현실은 그렇게 평화롭지 않았다.

당시 조선은 동서로 분당이 된 이후(선조 8년), 기축옥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 세자 책봉문제로 실각한 서인 정철에 대한 입장차로 동인의 분열, 일본과의 화의 주장 문제로 남인의 거두인 유성룡의

33) 寇恂은 東漢 때 昌平人으로, 일찍이 영천 태수가 되어 여러 차례 도적을 평정했고 이후 천자를 따라 출정할 때 영천 백성들이 그를 1년 동안 더 영천 태수로 유임시켜 다스리게 하기를 청했다는 기록이 『後漢書』 중 「寇恂傳」에 보인다. 민생 안정과 우국 정신이 뛰어난 그가 현실 참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인물의 상징성을 지니는 만큼 이민환이 그를 하나의 개념으로서 떠올리는 것은 그의 현실 인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각(선조31년), 기축옥사 문제 재론으로 복인에 의한 서인의 몰락 등이 차례로 이어지면서, 정치의 무게 중심이 복인에게 옮겨지고 있던 때였다. 이민환의 출사 시기가 이 즈음이고 보면 복인이 정권을 완전 장악하면서 더 이상 중앙 요직에 배치되지 못하고 한직으로 밀려난 상황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35세 전후), 그의 관료로서의 삶은 처음부터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출사의 포부를 안고 있던 젊은 이민환에게 이러한 정치 현실은 가히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초기작 <빙계수창>에서 발견되는 자연과 현실의 두 세계를 오가며 갈등하는 모습 또한 부조리한 현실을 벗어나고픈면서도 동시에 그럴 수 없었던 관료형 문인으로서의 이러한 자기갈등이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관료로서의 삶은 1618년 姜弘立의 종사관이 되어 明의 부원군으로 출정했다가 深河 전투에서 패하여 17개월 간 拘留된 이후부터 더욱 크게 변화된다. 선비로서 전쟁에 참여한 이상, 죽음이 있을지언정 항복이라는 치욕은 용납될 수 없었던 게 당시의 현실이고 보면, 자결을 시도했으나 주변의 만류로 성공하지 못한 채³⁴⁾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상황, 굴욕과 고초의 나날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여진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자 한 그의 忠情엔 아랑곳 않고 싸늘한 시선만이 고스란히 전해졌던 상황, 그리고 이로 인한 관직 진출의 제한이 삶의 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여져야만 했던 상황³⁵⁾ 등은 전쟁이 그에게 남긴 뼈아픈 傷痕이 아닐 수 없었다. 전쟁의 소용돌이로 인해 권력의 최중심부에서 요직을 겸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관료형 문인으로서 벼슬길을 조심조심 걷고 있었던 그로서는 40대 후반에 겪은 이 같은 전쟁 체험과 汚名은 그 자체로서 충격이자 평생 그를 따라다닌 슬픔이기도 했을 것이다. 따라서 17개월

34) 『紫巖集』 5권, 「柵中日錄」, 광해군 11년 3월 4일조.

35) 광해군 12년 7월 평양으로 귀환 후 그는 여러 번 관직 제수에 제한을 받았는데, ①인조 5년 慶尙道號召使 장현광의 종사관에 임명되었다가 사간원의 탄핵을 받은 일(『인조실록』 15, 5년 2월15일 임자), ②같은 해에 金郊 찰방 임명 시에도 양사의 탄핵을 받은 일(『인조실록』 16, 5년 6월25일 임자), ③인조 13년 흥원현감에 임명되었을 때 사간원의 탄핵을 받은 일(『인조실록』 31, 13년 4월17일 병신) ④복권된 이후인 인조 22년에도 사헌부의 탄핵에 같은 내용이 계속 포함된 일(『인조실록』 45, 22년 6월9일 을축) 등이 그 한 예이다.

간 拘留생활과 평양으로 귀환된 이후 정치 현실은 그로 하여금 현실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게 했을 것임이 분명하다. 특히 포로 생활 당시에는 그의 군관과 사내종이 가차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도하면서³⁶⁾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 현실에 대한 회의가 컸을 것이다. 따라서 도가적 초월을 지향하고 현실 참여를 부정하는 일련의 작품들은 이러한 그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方臺亭 次李蒼石韻>, <復用前韻 自敘>).

그러나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체념하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기도 하는 등 양가적 태도를 보여주기 마련이다. 이민환은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도가적 초월을 지향하는 작품을 창작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至道를 추구함으로써 올바른 선비 의식을 정립하고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題朝聞錄後序>). 비록 녹록치 않았던 현실이 그를 자연에 머물게 했을 지라도 愼獨하는 선비로서의 자세에서 보듯, 현실에 대한 그의 부단한 관심과 우국충정마저 꺾지는 못하였다(<題方臺亭>).

이처럼 정치적 浮沈 속에서 40~50대를 보낸 그는, 관료형 문인으로서 현실세계를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었으면서 동시에 은구형 문인이 되어 부조리한 현실을 벗어나 자연에 기거하고픈 마음 또한 완전히 버릴 수 없었기에, 이러한 자기 모순적인 고민이 이 시기 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러한 고민은 30대 전반기까지의 관직 입문 시기, 30대 후반~50대 전반까지 당쟁과 요동 출병으로 인해 시련을 겪은 시기, 50대 후반 이후 국난 극복의 활동을 통해 정치적으로 복권된 시기³⁷⁾를 훨씬 지나 60대 후반~70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한때의 시련을 겪고 난 후 담담해진 이의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로 ‘자연’과 하나 된 마음을 읊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孤雲寺>). 이제 더 이상 현실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정서마저도 아름다운 자연 속에 모두 녹아 인간이

36) 『紫巖集』 5권, 「柵中日錄」, 광해군 11년 7월 15일조.

37) 우인수, 앞의 논문, 56쪽에는 이민환의 관직 진출 상황이 도표를 통해 자세히 제시되어 있어 참고할 만하다.

자연이고 자연이 인간이 되는 物我一體의 경지를 통해 한층 더 성숙된 정신세계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 정세가 정묘호란(인조 5년/53세)과 병자호란(인조14년/64세)을 겪으면서 이후 조선에서 청이 결코 쉬운 상태가 아니었음을 체감함으로써 그 전의 요동 출병에서 후금에 굴복한 이들에 대한 비난의 시선이 다소 약해진 것과도 맞물려 있다. 이민환의 항복 사실이 더 이상 크게 문제시 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적인 사평³⁸⁾이 나오기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오랫동안 간직해 온 아픔이 국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점차 극복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써 그의 시에서도 자연 합일, 물아일체와 같은 시적 세계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인식주체의 현실 인식의 변모는 일부 輓詩에서도 더러 발견된다. 비록 輓詩 자체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여타 시들에 비해 현실 인식을 뚜렷이 찾기는 힘들지만, 親疎관계에 따른 작품 길이의 차이, 내용의 충실성 등 표면상 발견되는 특징들 이면에 시기별 그의 인식 변화의 양상을 읽을 수 있어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다.

<氷溪酬唱>, <題揖僊亭> 등을 지었던 40대에 그가 남긴 輓詩는 ①<輓金柏巖功>, <輓吳竹牖>, <輓權花山應銖>이고, <題朝聞錄後>, <題方臺亭>, <方臺亭 次李蒼石韻>, <復用前韻 自敘> 등을 지었던 40代 후반~50代에는 ②<輓申梧峯之悌>, <輓申修撰達道 號晚悟>, <輓金孝伯>, <輓孫季眞>이며, <孤雲寺>를 지은 60代 후반~70代에는 <輓金經歷 是樞>, <輓金孝仲>, <輓文兵使希聖>, <輓金徵士光繼>, <呈朝天使鄭參議> 등인데, ①에서는 輓詩의 대상과 크게 친분이 없었던 듯 대체로 소략하고 형식적으로 풍모나 업적을 칭양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 ②에서는 이와 더불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이를 잃은 슬픔이 보다 짙진하게 드러난다. 그러다가 晩年 무렵에는 관직 생활도 관직 생활이지만 늙음, 병 등으로 인한 개인적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죽음을 향한 태도 또한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③). 인간은 누구나 젊은 때는 삶에 대한 고민이 많은

38) 정태제, 『史草 上』, 한국사료총서 『조선시대사초1』, 인조16년 3월 25일 무자.

반면,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인식주체가 죽음과 가까워질 즈음, 주변 인물들의 죽음을 목도하는 경우는 이전 시와는 달리 더욱 감상적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시점에 이르면 자신을 둘러싼 현실에 대해 강한 비판적 시선을 보이기 마련이다. 이러한 면은 <輓金經歷 是樞>와 <輓文兵使希聖>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輓金經歷 是樞>는 經歷 金是樞(1580~1640)를 追悼한 詩이고 <輓文兵使希聖>은 1619년 深河 전투에서 함께 營柵에 갇힌 후 景新(1620)년에 송환된 바 있는³⁹⁾ 병사 文希聖을 哀悼한 輓詩인데, 두 편 모두 이민환의 晩년에 쓴 시로서 전자에서는 죽은 이의 업적을 칭송하는 과정에서 국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강한 어조로 드러난다면, 후자에서는 전쟁을 함께한 戰友에 대한 애뜻한 마음이 죽음에 대한 진지한 태도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⁴⁰⁾ 특히 <輓金經歷 是樞>에서는 ‘嗟哉塵寰事 得喪不須競 千秋公是非 莫逃衡與鏡’라고 하여 표면상 김시추가 한 일에 대한 세상의 是是非非를 비판한 것이지만 이면에는 이민환 자신에 대한 시끄러운 여론에 대한 불만 의식이 함의된 것이기도 해서 항복한 사실로 인해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그의 생애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도 한다. 이들 輓詩를 지을 당시 이민환은 老衰하고 또 병석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인지 시에서도 죽은 이에 대한 슬픔이 이전에 비해 더욱 강하게 느껴질 뿐 아니라 섬세한 감수성마저 엿보인다.

결국 그는 평생 경험해야만 했던 혼란한 현실을, 일반 詩들에서는 자연과 현실의 대립 구조 속에서 나름의 이중적인 인식과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輓詩에서는 ‘죽음’이라는 화두 앞에서 개인적인

39) 『紫巖集』 1, “輓文兵使希聖 己未 以定州牧使爲中營將 赴深河之役 同囚柵中 庚申七月 偕還 官至副摠管”.

40) ①<輓金經歷 是樞>: “往在昏朝日 奸兇執國命 生殺惟所欲 虐焰日益盛 欺蔽踵斯高 蠱惑甚檜泳 道路但以目 議者通衢橫 公獨奮挺身 直氣風霜勁...(中略)...未隨執紼後 杜戶抱一病 嗟哉塵寰事 得喪不須競 千秋公是非 莫逃衡與鏡 可知存者長 名與鶴駕並 我諗太史氏 何人撰獨行.”; ②<輓文兵使希聖>: “君是大丈夫 我乃一腐儒 趨向雖異途 氣味則相孚 同被窟中拘 生還曾不圖...(中略)...念我病且癯 在世應斯須 地下永相趨 此願却區區 不覺便長吁 茹痛無時無.”

슬픔과 더불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晩年에 자연을 읊고,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접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은 했을 지라도 현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도가적 초월의지를 끝내 실현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는 1649년(인조27) 77세의 나이로 병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대동찰방(61세), 홍원 현감(63세), 동래부사(66세), 장예원 판결사(69세), 호조 참의(71세), 형조 참판(72세) 등의 직책을 두루 역임한 그의 관직 생활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병자호란 당시, 그가 64세의 나이로 영남에서 의병을 모집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의병활동은 향촌지배 조직과 상호간의 혈연과 지연적 연대를 바탕으로 하층민을 조직함으로써 가능한 것⁴¹⁾이고 또한 전쟁에 필요한 물적 기반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민환은 어느 정도 향촌 사회에서의 경제적 기반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의병활동은 포로 생활이라는 치욕적인 과거사를 생각한다면 당연한 憂國表情의 발로일 수도 있지만 이 시기 의병활동이 결과적으로 향촌사회에서나 중앙권력에 대해 보다 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였음을 고려할 때⁴²⁾, 관계 진출이라는 개인적인 욕망과 어느 정도 결부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이 시기를 살아간 사대부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었을 현실에 대한 끝없는 憂患의식으로부터 이민환 역시 자유롭지 못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결국 현실에 대한 그의 부단한 관심이 내면 안팎으로 어느 정도였던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작품 구조 속에서 발견되는 이민환 시의 현실주의적 성격은 당대 성리학자들의 觀物的 태도 변화와도 일정한 함수를 갖는다.

41) 정진영(1998), 「16, 17세기 제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성격」,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237쪽.

42) 의병활동이 활발하던 1592년에는 일거에 620여 職宦이 가설되었고, 난 후의 宣武原從功臣錄의 9천여 명 중 상당수는 의병에 참여했던 제지사족에 대한 논공이었다. 『湖南節義錄』의 <壬辰義蹟>조를 보면 남원 출신 중 의병활동으로 褒勳된 사람은 39명이고 이 중 난 전 관직을 맡지 않았던 사람은 18명에 달한다(정진영, 앞의 논문, 187쪽; 하태규(1990), 「壬亂期에 있어서 全北人의 倡義活動<湖南節義錄>의 분석을 중심으로-」, 『전라문화의 맥과 전북 인물』,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190-198쪽).

주지하듯이 조선 문단은 16세기에는 사물을 바라보는 유학자들의 태도가 이념적 인식을 강하게 드러내는 방향이었지만, 전쟁과 당쟁의 충격을 겪으면서부터는 外物에 대한 관심이 차츰 넓어지면서 이념적 인식이 경화되고 역사적 인식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단 일반의 경향을 주목한다면 이민환 시에 나타난 현실에의 관심 역시 이 같은 사물관의 시대적 변모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실 당대 文士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대를 살다 간 文士들 간에도 현실 인식을 표출하는 방법에는 크고 작은 同異가 있기 마련이다. 즉 放逐·流配의 시련기를 거치면서 현실주의를 내포한 초월이라는 산수 인식을 드러낸 권력의 최종심부에 있었던 관료형 문인과, 부단히 노력했지만 끝내 권력의 주변부에 머무르면서 현실 참여를 배제한 초월이라는 산수 인식을 보인 은구형과 관료형의 점이 지대에 놓인 문인, 그리고 남명학과 퇴계학을 아우르는 강안학풍 속에서 성리학적 세계 탐구와 현실대응의 타계책을 함께 마련한 은구형 문인들 등과는 분명 동일화될 수 없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살다간 모든 문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유형 분류한 후 그들이 남긴 작품의 내적 구조 분석을 자세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17세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성리학자들의 觀物的 태도의 변화는 이민환에게서도 감지되지만 역사적 인식보다는 이념적, 즉물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아 그의 시는 여전히 16세기 이념적 자장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면모들은 좀 더 고증해 봐야겠지만 남명학과와 퇴계학과와의 거리 때문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학파적 성향에 따른 현실 인식의 차이와 觀物的 태도의 변화 또한 문인 유형에 따른 현실인식의 究明과 더불어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의 숙제이다. 시간 상, 역량 상, 차후 과제로 남겨둔다.

주제어 : 자암(紫巖) 이민환, 현실인식, 도가적 초월, 시적 구조, 미학, 사물 인식 관계

참고 문헌

<기본 자료>

- 『敬亭先生集』 1·4·12권.
『五峯先生集』 4권.
『紫巖集』
『杜少陵詩集』 3권.
『漁適集』 3권.
『仁祖實錄』
『鶴峯集』 1권.
『雲川集』 2권.
『梧峯集』 5권.
『練藜室記述』 21권.
『星湖僊說』 2·4·10권.
『谿谷集』 25권.
『史草 上』 (한국사료총서 『조선시대사초1』)
『簡易文集』 7권.

<단행본 및 논문>

- 고윤수(2004), 「광해군대 조선의 요동 정책과 조선군 포로」, 『동방학지』 12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41-97쪽.
_____ (2006), 「이민환의 『紫巖集』과 17세기 조선의 요동문제」, 『동북아역사논총』 9, 동북아역사재단, 125-151쪽.
문명순(2005), 「경정 이민성 문학의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218쪽.
박경은(2000), 「경정 이민성의 시문학」, 『한문교육연구』 15, 한국한문교육학회, 199-225쪽.
박상영(2007), 「신흙 시조의 이중 구조와 그 의미지향」, 『한국시가연구』 22, 한국시가학회, 101-137쪽.
_____ (2008), 「정훈 시조의 구조적 특질과 그 미학적 의미」, 『시조학논총』 28, 한국시조학회, 29-61쪽.
손오규(2000), 「산수문학에서의 인물기홍」, 『반교어문학』 11, 반교어문연구회, 89-116쪽.
이중은·정민(1988), 『歷代詩話類編』, 아세아문화사, 713-714쪽.

- 안세현(2008), 「紫巖 이민환의 「柵中日錄」과 「建州聞見錄」에 대하여」, 『동방한문학』 34집, 동방한문학회, 111-143쪽.
- 우인수(2008), 「자암 이민환의 시대와 그의 현실대응」, 『동방한문학』 34, 동방한문학회, 41-77쪽.
- 이구의(2008), 「자암 이민환의 시문학 연구」, 『동방한문학』 34, 동방한문학회, 77-110쪽.
- _____ (2008), 「紫巖李民寔 「義牛塚」 賦 攷」, 『韓國思想과文化』 41, 한국사상문화학회, 67-93쪽.
- _____ (2007), 「紫巖 李民寔의 「獨樂園」 賦 攷」, 『상주문화연구』 17, 상주문화연구소.
- _____ (2008), 「자암 이민환의 시문학 연구」, 『동방한문학』 34, 동방한문학회, 77-110쪽.
- 장유승(2008), 「박세채 한시를 통해 본 17세기 산림의 현실인식」, 『한국한시작가연구』 12, 한국한시학회, 139-169쪽.
- 장재호(2008), 「자암 이민환의 생애와 저술」, 『동방한문학』 32, 동방한문학회, 7-40쪽.
- 정우락(2002), 「南冥의 事物認識方法과 詩精神의 行方」, 『南冥學研究論叢』 11, 남명학연구원, 191-227쪽.
- _____ (2006), 「西溪 金聃壽의 戰爭體驗과 그 文學的 對應」, 『영남학』 10,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378-379쪽.
- 정진영(1998), 「16, 17세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성격」, 『조선시대향촌사회사』, 한길사.
- 조해숙(1988), 「이민성의 시조한역의 성격과 의미」, 『관악어문연구』 13,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209-234쪽.
- 최재남(2005), 「경정 이민성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9, 한국한시학회, 67-99쪽.
- 하태규(1990), 「壬亂期에 있어서 全北人의 倡義活動-<湖南節義錄>의 분석을 중심으로-」, 『전라문화의 맥과 전북 인물』,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190-198쪽.
- 한명기(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이 논문은 2014년 2월 7일 투고 완료되어
2014년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4년 3월 14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박상영
소속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전자우편 : life111@cu.ac.kr

A study on Recognition of Reality in *Ja-am*(紫巖) *Lee Min-Hwan's* Sino Poetry

Park, Sang-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Ja-am*(紫巖) *Lee Min-Hwan's* recognition of reality through his 20 *Sino poetry's* structural analysis and its aesthetic meaning. *Ja-am*(紫巖) is one of the great writers of the *Choson Dynasty*, but did not have much attention. Due to the fact he did not leave ample literary writings of poetry and no notable literature theories, unlike his brother, also a famous writer, *Lee Min-Seong*. However his special experience as a Prisoners of War and his recognition of reality are worth enough to research.

His literary groundwork is related to two things, his brother's literary features(focusing on the spirit of poetry and significant contents than formal artifices) and *Dubo*(杜甫)'s realistic poetry tendency. His works are divided into two tendencies, the opposing system of 'the Subject-the Object' and trigonal system of 'the Subject-the Object-a Concept'. The former has characteristics such as the positive view on taoist's transcendental will, the denial of the confucius political participation, ignition of the inner state by first person narrative, materialistic awareness, usage of daily words, selfness discourse, peaceful and secluded feeling from works(<方臺亭 次李蒼石韻>, <復用前韻 自敘>, <孤雲寺>). The latter has features such as the positive view on both taoist's transcendental will and the confucius political participation, complex of idealogical and historical awareness, the pursuit of the confucius moral(<題朝聞錄後>, <題方臺亭>).

This phenomenon was from the writer's individual and social aspects such as adverse government service, life as a prisoner of war, a stigma as a surrender, righteous army activity, never straighten a big step in life, etc. In this complicated life, he kept having huge interest o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It means that 'nature' to him is not the peaceful and secluded place, but the preliminary place for the future political participation. It also means that *Ja-am* is on the boundary between "rural scholars pursuing

Confucian truth(隱求型士林)” who love “nature” and “scholars-bureaucrats engaging in politics(官僚型士林).”

Keywords : *Ja-am*(紫巖) *Lee Min-Hwan*, recognition of reality, taoist transcendence, Poetic Structure, aesthetics, view of things.